

21'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마을에서 만남사이



21'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마을에서 만난 사이

CONTENTS **목차**

02	인사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03	강북구마을자치센터는
03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04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05	21'마을사업지원 돌아보기
	우리의 마을살이 이야기
06	도전소모임
14	이웃만들기
52	모임활성화
73	공간활성화
82	골목만들기
87	지역사회의제특화
92	인터뷰
112	19'~22'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소개



인사말

2021년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생활에 칸막이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고립과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배워가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 작은 단위의 소통,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또한 이웃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을살이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대신 작은 골목축제 연계,
고립된 노인이 없는지 집으로 찾아가는 노노돌봄 활동,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챌린지 활동,
대면 대신 온라인 배움의 장을 열어 마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사이’ 사례집은
코로나 시기에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극복해나가고자 했던
나와 우리, 마을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애쓰고 품을 내주신
마을활동, 마을활동가 분들이 있어 마을은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강북구 마을공동체는 나와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마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마을에서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강북구마을자치센터장 최인정

강북구마을자치센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 01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연대하며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과 호혜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 02 마을의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를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마을활동 경험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여 다른 주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03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동력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합니다. 모임을 넘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이웃이 모여 다양한 마을살이를 꿈꿉니다.

◇ 마을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모임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춘 상담, 컨설팅

◇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발, 운영합니다.

+ 마을실천대학(기초, 심화) / + 주민리더교육 / + 열린마을강좌 지원

◇ 동·의제 마을넷지원

동·권역별 모임을 통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동네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의제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동별·의제별 마을공론장 / + 강북구 마을주간, 마을자치 이음축제

◇ 홍보

센터 및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동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마을소식 '복새통' 제작 및 발송 / + 홈페이지 www.gbmaja.org / + 카카오톡 [강북구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필요와 문제를 나누며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입니다. 지역의 관계망 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도전소모임	처음 즐거운 마을살이를 시도하는 모임을 지원합니다.
이웃만들기	동(洞)단위 새로운 이웃 만들기,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합니다.
공동체모임 활성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연결지점을 발견합니다.
공동체공간 활성화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열린 운영과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골목만들기	골목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해 골목에서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지역사회의제 특화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지역문제 해결로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마을 기록, 기후위기 등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입니다.

※ 지원사업의 유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상담으로 더 쉽게 시작하세요. 새로운 주민모임 형성,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기획과 실행,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마을지원활동가가 상담해드립니다.

찾아가는 마을상담과 컨설팅	카카오톡 채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추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반(개념, 사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류 작성방법 +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 등	+ 강북구 마을공동체 1:1상담 +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 알림 +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및 동네 소식 등

21' 마을사업지원 돌아보기

<p>21년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모사업 공고 • 공모사업 설명회 	
<p>21년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마을지원활동가 모집 	
<p>21년 3월</p>		
<p>21년 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모사업 협약 & 선정자 교육 	
<p>21년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공모사업 공고 	
<p>21년 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권역네트워크 • 2차 공모사업 협약 & 선정자 교육 	
<p>21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중간컨설팅 	
<p>21년 8월</p>		
<p>21년 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간 	
<p>21년 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평가컨설팅 • 도전소모임, 이웃만들기, 모임활성화 사업종료 	
<p>21년 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구마을자치'이음축제' • 공간활성화, 골목만들기, 지역사회의제특화 사업종료 	
<p>21년 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사업지기 성과한마당 '수고했어, 올해도! 마자마자!' 	

도전소모임



도전소모임은

처음 즐거운 마을살이를 시도하는 모임을 지원합니다.

2021 도전소모임 활동 팀

같이 가치 만보

다락방(多樂房)

장미마을 반상회

코·탈·맘

같이 가치 만보

사업지기 박성미, 문초희, 봉효진

활동소개 정신건강과 체력건강을 지키고 동네주민과 마음을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배드민턴 운동, 둘레길 산책 등으로 체력증진 활동을 하며 소통하였고, 책 읽기 모임을 통해 마음 치유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알아가는 활동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리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모이자고 하면 다들 바쁘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웠는데, 도전소모임 활동이 매개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체력증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웃주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다수의 인원이 활발하게 모일 수 없었고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면 활동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책모임을 진행하여 힐링하며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다락방(多樂房) 함께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손뜨개모임방

사업지기 조미선, 최용미, 김미영

활동소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생활지원사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동료애가 더 돈독해지고 활동을 통해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수세미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리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강북구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도전 소모임' 활동을 지원받아 직장 동료들과 소모임 활동을 진행했는데 직장 동료끼리 활동을 해서인지 동료애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 독려하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모임 활동을 통해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했는데 다들 받고 너무 좋아하셔서 참여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받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 소모임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더딘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협동하며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마을자치센터에도 감사드린다.

수세미 나눔 받은 어르신 이야기

‘너무 예뻐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사용해?’라며 ‘모양도 예쁘고 이런 정성 들어간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받아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전달하게 된 것을 설명 드리니 ‘생활지원사 덕에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다’며 ‘설거지 할 때마다 걸어두고 잘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여자 후기 나눔

- 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 강북구 마을공동체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동료 간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이번 소모임을 통해 누군가에게 재능을 나눠줌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소모임 회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최○○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일인데 함께여서 할 수 있었고, 하는 동안 이렇게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은 처음이었습니다.”
- 황○○ “자녀들이 엄마가 집에서든 뭔가를 하면서 계속 웃고 활동 내용을 말해주면서 행복해 하는 게 보인다며 다른 활동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활동은 얼른 갔다 오라고 빨리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 정○○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모여 활동 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강북구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되어 진행된 것 같아 정보공유나 홍보활동을 다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같은 강북구 주민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활동도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Q. 앞으로 ‘다락방’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도전소모임 활동에 참여했던 회원 중 네 명은 현재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한 상태이다.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텐데 이 모임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 활동 중에 서로 정보 공유하여 자격증(요양보호사)을 취득한 회원 두 명이 있다.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에 또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다.

40대 육아로 지친 사람, 50대 갱년기로 힘들어했던 사람, 60대 자녀 결혼으로 빈 둥지 증후군에 빠졌던 사람이 모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였고, 새로운 이웃이 생겨 든든하고 생활에 활력도 찾았다. 너무 즐거운 시간여서 이번 도전 소모임 활동은 끝내더라도 계속 직장 동료, 이웃이 되어 함께 모임을 하며 친목도모 및 작품 완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생활지원사뿐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끼리 소모임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소소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장미마을반상회

사업지기 강윤화, 박성민, 천명희

활동소개 코로나19로 원래 계획하였던 대면모임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각 가정에 비즈 반지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미니텃밭가꾸기 등 소소한 체험키트를 배부하여 활동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리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서로를 잘 몰랐던 이웃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 적어도 우리 윗집,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강윤화 :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도하 : “엄마랑 케익만드는거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박성민 : “다같이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매번 모임을 진행하고 난 뒤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때 부합한 증빙자료의 형태가 아니어서 다시 요청드리게 되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지 않을 때 어려웠다. 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친목을 다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장미마을반상회’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도전소모임 활동이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큰 규모의 모임을 통해 조금 더 개인이 원하는 취미라던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보면 어떨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다.



코.탈.맘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한 맘들과 아이들

사업지기 조옥순, 황미라, 김정순

활동소개 가족공예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가족제품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해 토피어리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며 어르신들에게 나눌 수 있어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모여 함께할 계획이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웃이 모여 친목하며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우리 지역이 따뜻하게 하나된 점이 보람으로 남는다.

최○○ ”처음으로 마을 모임에 나가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으로 실생활에 쓰는 카드지갑과 선글라스 케이스와 필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 참 즐겁습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모일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Q. 앞으로 ‘코.탈.맘’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강북구에서 오래 활동하신 ‘노노돌봄’ 모임과 함께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웃만들기



이웃만들기는

동(洞)단위의 새로운 이웃만들기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합니다.

2021 이웃만들기 활동 팀

건강으로 소통하는 미삼

너랑 나랑

마마담

밥 사랑

세대아우르기

오붓한 이웃

포레스트의 꿈

꿈사모

동동모임

모여라 꿈동산

사이좋은 텃밭

세수대야

운동하소서

핸드메이드 사랑!

나길주민들

디어마이프렌드

발효사랑

삼동이네

알콩달콩

은행빌라주민회

행복하게 놀아요

건강으로 소통하는 미삼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체력단련

사업지기 조기우, 이영순, 이순자, 심인자

활동소개 마을 주민과 함께 걸으면서 정다운 이야기로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며, 오패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을 알고 소통이라는 것을 배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배운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간단한 준비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한 이웃과 소통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었다. 이웃주민들과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고 걷고 또 걸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야외 활동이지만 코로나19로 자유로이 활동을 못 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고 맛을 알아가는 시점에서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건강으로 소통하는 미삼'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강북구 걷기회원들과 계속 걷기운동을 유지하는 것, 마을 주민들과 허심탄회 소통하면서 야유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웃만들기 활동을 통해 모였던 걷기 주민과 기존 걷기회원분들과 계속해서 걷기운동을 할 계획이다.

꿈사모 아름다운 산책로 꾸미기 및 느티나무쉼터 조성사업

사업지기 박형철, 김행임, 임정순

활동소개 아파트 옆 산책길 꽃길꾸미기 및 쓰레기 치우기와 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인 Cafe를 통해 활동을 소개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아 더 많은 이웃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아름다운 산책로 꾸미기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과 동네 주민들이 산책을 하며 모두 기뻐하고 꽃을 보며 힐링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솔선수범 참여 해주신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이웃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웃만들기 활동을 통해 많은 이웃을 알게 되어 좋았고, 아파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가진 재능들을 발휘하여 노력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향후 좋은 이웃관계와 봉사활동 모임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시국이라 모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많은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던 점이 가장 어려웠고 주민들 대상으로 느티나무쉼터에서의 시낭송회와 사진 전시회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꿈사모’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에도 이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여 이번 첫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보고 싶다.



나길 주민들 내집 창틀, 계단 꽃 꾸미기

사업지기 이현수, 백낙철, 최민호, 이희경

활동소개 오현로25 지역의 재개발이 무산되었지만 주민들이 보다 생기 있게, 밝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화분을 방법창틀, 계단에 배치하게 하여 대화 소재를 만들어 카톡으로 이웃 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닫힌 마음을 열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화의 소재가 다양해졌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창가가 꽃으로 예쁘게 꾸며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표시판을 보면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으며 좋은 활동이라고 격려해주는 일도 있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결과보고서와 정산 서류 작성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웠다. 증빙서류로 필요한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거나, 코로나로 인해 모임의 제한이 있어 간식을 일일이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다. 실무자들이 모여 의논, 협의할 때 식사비를 포장으로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 방역수칙보다도 엄격한 공모사업 운영 수칙에서 업무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아쉬웠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회적으로 이 활동이 끝나서 무척 아쉬워하였다. 지속적인 지원과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나길주민들’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은, 지금은 힘들어서 안 하고 싶는데 무리없이 끝나면 도전 할 것도 같다.

‘꽃수다’라는 카톡방에 회원 11명이 참여 하여 꽃에 대해 소식을 올리며 마음을 교감하고 있다. 내년에 지원사업을 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절별 꽃을 심고, 키우고, 나누는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기존 회원들에게 더욱 참여를 독려하고, 이번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싶다.



너랑 나랑 도자기로 빛는 우리 동네 친환경

사업지기 송종익, 이광조, 임유나

활동소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도자기를 만들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접시, 컵 만들기 등의 활동 3회 진행하였다. 환경운동가를 초청하여 환경 지켜나가기 운동에 대한 강의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1회 진행하였고 환경관련 도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로 독서토론을 온라인으로 1회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실용적인 작품이 탄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환경을 생각해보고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일 수 없었고 참여 인원을 제한해야 해서 제대로 모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Q. 앞으로 ‘너랑 나랑’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동동모임 함께아는 동네언니 동네동생

사업지기 오민영, 김은영, 정공주

활동소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연령 및 세대가 달라 함께 할 기회가 없던 지역 주민들을 '동네언니&동네동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일청 담그기를 하면서 이웃간 친목을 도모하고 담근 청을 우리의 이웃과 독거 노인 분들께 나눔을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가장 보람된 일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제청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고 환하게 웃어주어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이번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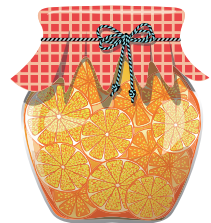
만드는 손길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했다. 과일을 씻고 담그면서도 다른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좀 더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기에 나의 이웃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많이 할 수 없었다는게 가장 어렵고 아쉬웠다.

Q. 앞으로 ‘동동모임’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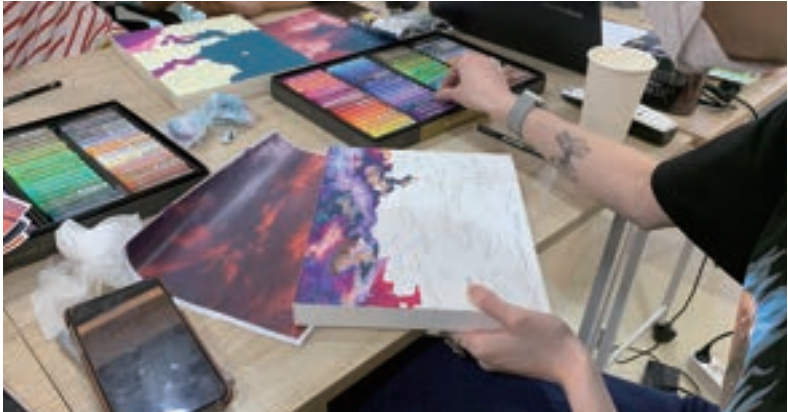
향후에는 자체모임을 운영해볼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물론 좋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모임 활동의 한계가 있어서 자유롭게 자체 모임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다.



디어마이프렌드 문화예술로 친구만들기

사업지기 조민지, 이경현, 신연선

활동소개 어릴 적에는 참 많다고 생각했지만 커가며 점점 귀해지는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로, 문화 예술을 통해 강북구 청년들이 편하고 부담없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리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번 이웃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강북구 청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영화와 그림이라는 대중적인 예술을 매개로 하여, 서로 낯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사를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쌓고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활동에 참여해주셨던 분께서 동네생활 커뮤니티에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매우 보람있고 희망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끊은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절망적인 세대 속에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모여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계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연구가 없던 강북구에 소속감과 애정이 생겼다. 이웃만들기 사업 진행을 위해 강북구의 행정동, 특성과 주민 구성 등을 조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강북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이 많은 강북구를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웃만들기 사업 활동을 홍보하면서 공동체나 모임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우리 활동을 홍보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분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졌고 우리 스스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진행해보는 이웃만들기 사업이었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예산변경 과정이 어려웠다. ‘무비 살롱’ 활동을 진행할 때 빔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산 항목이나 세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주변분들의 도움도 받고 우리 팀원들의 빠른 대처로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던 부분이다. 사업을 계획할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 대면 모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2회의 모임과 마무리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불가피하기에 비대면 모임도 고민했지만, 애초 기획 의도나 목표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중단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더욱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Q. 앞으로 ‘디어마이프렌드’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 활동의 방향이나 목표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진행하고 싶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획 단계에 그친 ‘일요 만찬’이나 ‘플리마켓’, ‘스포츠 모임’ 등도 실현시켜 보고자 한다.

마마담 마음에 마을을 담다

사업지기 이영아, 김하영, 이수경

활동소개 비대면 활동으로 소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 독서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사진을 함께 배워 마을을 기록하고 담아내었다. 또 소소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코로나로 지친 마을을 위로하기도 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서로를 건너건너 알고만 있던, 또는 연결고리가 없던 엄마들이 ‘마마담’으로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책모임을 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던 사진을 배워 찍어 보고, 사진을 통해 또 마을을 기록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참 즐거웠다. 나만의 도장을 만들어 나의 캘리작품에 낙관을 찍을 때는 정말 작가라도 된 듯 으쓱하기도 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내가 사는 마을을 잘 지켜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더 커졌다. 마을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순환에 대해 이야기 하며 플리마켓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플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도 자원순환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었고, 수익금을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하는 마을살이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동네의 엄마들이 소소한 수다를 하며 지금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기후위기 행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각자의 개별 활동도 하고, 강북기행의 행동실천에도 참가해 보고 또 동네의 청소년들과 함께 플리마켓을 열어 안 쓰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 수익금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자원순환의 중요성, 함께 나누는 즐거움, 실천을 통한 작은 변화들을 배우게 되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마담과 요플레는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등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만남의 어려움이 있었다. 모임 구성원은 다섯 명인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4인 이상 만날 수 없어서 모임 운영이 어려웠고, 책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지만 토론이 쉽지 않았다.

인원수에 제약이 있다보니 마마담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모임원을 더 모집할 수 없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 ‘기억담기’ 활동 내용이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이 많았다. 함께 동네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함께 모여 출사 하는 것이 어려워 사진 찍는 것이 서툰 모임원들이 개별로 사진을 찍다 보니 동네의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해 마을기록 책자를 발간하지 못하고 포토엽서달력으로 대신 제작하게 되어 많이 아쉽다.

Q. 앞으로 ‘마마담’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마마담 모임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올해 이웃만들기 활동이 마중물이 되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마마담이 모이고, 서로 알아가고 좀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모임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종료 된 지금도 마마담은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야기 하며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함께 뜨개질도 도전하고, 자원순환 활동에도 참여하고, 플리마켓은 정기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마마담의 모임은 지속될 것이라 공모사업 보다는 모임원의 회비로 좀 더 자유롭게 모임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이웃만들기 사업이 모임을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었듯 내년 공모사업으로 마마담의 활동이 조금 더 확장되고 단단해지고 알려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고민 중이다.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다.

모여라 꿈동산 20·30 마실ro?

사업지기 서정윤, 심혜지, 안단비

활동소개 ‘동네산책’ 활동으로 마음과 몸 챙기기, 산책코스를 공유하였고 ‘이야기산책’ 활동으로 마을에서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하고 경험하며 관심사 및 공동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다. ‘문화산책’ 활동으로는 유대감 형성을 위한 흥미 분야를 공유하고 일일체험을 통한 문화 소통을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관계와 소통,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유대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사를 온 후 신뢰할만한 이웃보다는 오며 가며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가 대부분이라, 소통할 때래가 없어 주말마다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혼자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고민거리가 있어도 공감해줄 누군가가 없어 장기간 우울감에 빠진 적도 많았다. 상담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찰나,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내용을 보고 주변 인물들을 모아 모임을 시작했다. 접점이 없을 것 같아 걱정도 되었으나, 그만큼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분야들이 나와 서로의 삶의 양식과 취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연령대가 되며 학교와는 달리 친구를 사귄 기회도, 방법도 알지 못해 난감했는데 모임을 통해 서로의 걱정거리에 공감하고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동네 친구들이 생긴 것이 모임 활동을 하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모임 구성원 모두 입을 모았다. 우이동, 미아동, 삼양동 등 활동 기간 이후 모임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 청년들이 늘어나 향후 모임 일정을 계획하는 중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

모임 구성원들이 사전 모임을 가지며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참여의 큰 이유는 첫째는 사람, 둘째는 지역이었다. 이사를 오거나 자취 또는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 내 특성을 알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길, 지역 주민이 아는 맛집,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는 과일/채소 가게, 주말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카페, 근거리에서 있는 마트, 목적지로 가기 좋은 지름길과 교통편, 주말 하루 친구 또는 가족과 보내기 좋은 코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모임을 가지며 산책코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장소들을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잘 알지 못해 대형마트나 체인점만 이용하다가, 살면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하니 동네 시장과 개인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을 구조의 이해와 참여

모임의 첫 단계는 개인과 개인 간 관계의 시작이었으나, 이는 개인과 지역사회(마을) 간 관계로 확장된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단지 개인과 개인이 차를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마을 자원과 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마을을 구성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마을축제에 참여하고 일일스토어 운영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사업과 도시재생, 상생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길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나 홍보지를 보며 막연하게 느끼고 '참가'의 의미로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모임을 위해 마을 사업에 대해 배우고 직접 들어가 '참여'하다 보니 그 원리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모임을 가지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사업이 왜 중요한지,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공동체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임의 체계성

첫 번째로, 사업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큰 배움 중 하나는 모임의 체계이다. 자체모임으로만 시작하였다면 알지 못했을 회계나 조직의 구성과 역할, 리더로서 수행할 과제 등이 그것이다. 사업비를 지출하는 데 예산 집행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기준이 있었기에 주어진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분배하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논의과정을 거치며 모임의 기반을 다지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활동 피드백과 컨설팅 부분이다. 자체모임을 가졌다면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던 상황도,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담과 피드백의 과정으로 모임을 더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주셨다. 리더로서 겪는 고민이나 구성원으로서 담당할 역할 분배 등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맥락을 잡고 체계적으로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비 운용에 관한 사항

제한적인 사업비 기준에서 해결하려다보니 보조금 사용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이야기 산책’과 ‘문화산책’ 중 청년들이 가고 싶어 했던 맛집이나 카페, 전시회 탐방 등은 보조금 집행기준의 상한금액을 넘는 금액이었다. 해당 비목에 맞춰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탐방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나 체험이나 전시의 경우 보통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의 상한 금액은 그 보다 낮은 금액이라 내려놓는 상황이 많았다. 이렇듯 정해진 예산 기준에 맞추느라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서울시 지침과 다른 사업 내 방역수칙, 홍보에 대한 조심스러움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임 내에서도 서울시 및 정부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하였는데, 국가 방역지침과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허용되는 방역지침이 달라 모임을 수시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모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식음을 하지 않고(마스크를 벗지 않고) 야외에서 하는 동네산책마저도 진행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받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사업 종료 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소수 모임 및 식다과 포장나눔에 대한 안내를 받아 급히 진행하느라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였다. 인원을 떠나 만남 자체가 불가하였기에 모임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주변 이웃이나 지역홍보지를 통해 참여 연락이 오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모임 입장에서 거절하는 상황이었다. 장애청년과 비장애 청년들이 짝을 이루어 모임 활동을 하자는 어느 단체의 제안도 있었는데, 장애청년들을 위한 활동가도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지침에서 허용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계라는 건 일상에서 조금씩 반복되고 자주 만나는 시간과 횟수에서 형성되기에, 모임 유지와 소통을 위해 SNS뿐만 아니라 대면모임활동으로 2인 1조로 모이거나 소수인원으로 만남을 수차례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할 때 기대하였던 바를 공식적인 결실로 나타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자체 모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이, 청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화, 여가 체험을 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해주었다. 모임의 체계성, 마을 자원과 구조 이해, 다른 마을 모임과 만남 등 공모사업의 중요한 장점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자체 모임 활동과 공모 사업으로 가능한 활동을 구분하여 지원할 생각이다.

발효사랑 전통발효 바른먹거리 알리기

사업지기 전금희, 최정자, 정진숙

활동소개 전통 발효에 관심 있는 이웃들과 함께 천연 발효 종초 만들기를 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건강에 좋고 환경에 유익한 종초 만들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또한 발효 먹거리의 좋은 점,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발효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고 배우며 더 이웃과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웃들과 함께 귀한 종초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모두들 좋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 우리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웃만들기 활동을 홍보하여 주변에서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재능기부와 우리 모임의 활동으로 나눔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공동체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더 자주 못 만나고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인원을 나누어서 여러 차례 해야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었다. 더 많은 이웃들이 참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Q. 앞으로 '발효사랑'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년 계획은 아직 없지만 종초를 나눌 수 있어 기쁜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거리두기 방역수칙이나 제반사항이 나아지면 팀원들과 의논해 볼 생각이다.

밥 사랑

이웃들과 함께 건강 찾기

사업지기 이이무라 미치코, 김지연, 현행자

활동소개 '이웃과 함께 건강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웃과 함께 건강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면서 힐링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마음도 몸도 즐겁게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자주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마을의 행사도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게 활동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안면만 있던 이웃과 관계가 깊어진 점도 보람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아 갈 수 있는 활동이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 장소 섭외가 어려웠고, 우리 모임의 콘텐츠가 먹거리 만들기와 먹는 것이어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목적이었는데 그 시간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진 것이 너무 아쉽다.

Q. 앞으로 ‘밥 사랑’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건강 찾기’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건강과 음식이라는 주제는 재미는 있었지만 방식을 다르게 접근하여 활동 해보고 싶다.



삼동이네 삼동이가 그리는 마을풍경

사업지기 김지현, 이주아, 이지윤

활동소개 '촬영 영상 및 편집에 대한 수업을 4회기 진행하며, 배운 것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엄마들이 마을의 여러 장소(아이들과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번3동의 장소 - 학교, 도서관, 놀이터, 복지관, 북서울 꿈의 숲 등)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번동의 좋은 장소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다. 완성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링크를 활용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스스로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2021년 6월 26일 번3동 주민총회시에도 어른들이 모두 찍고 편집한 것으로 아셨다가, 아이들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 및 편집까지 진행한 것이라 설명하니, 놀라움과 함께 아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셨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제한이었다. 자체적으로도 줌(Zoom)을 활용하여 모임을 자주 갖곤 했는데, 대면으로 같이 촬영도 가고 하면서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갖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Q. 앞으로 ‘삼동이네’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임의 활동을 다른 이웃들이 접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코로나19로 인원제한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여 많이들 서운해 하셨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인원을 더 충원하여서 진행해 보려한다. 우리 모임 활동이 알려지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셨고, 요즘 관심분야라 모집은 무리 없을 듯 하다.



세대아우르기 건강하게 함께 만드는 발효식품

사업지기 김은영, 문옥희, 김영희

활동소개 동네 이웃과 바른 먹거리를 통한 건강지키기와 전통발효음식 세대 전수를 통해 세대격차를 줄이고 소통하려고 시작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의 제약이 있어서 마을 이웃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전통음식 ‘고추장 만들기’ 활동으로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고, ‘메주만들기’ 활동은 코로나19로 진행하기 어려워져 ‘반찬만들기’로 대체하여 독거어르신들께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마을의 이웃주민들과 ‘고추장 만들기’ 활동을 하여, 우리가 사 먹던 고추장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어른신들의 지혜를 배우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모르는 이웃과 새롭게 인사도 나누게 되었고 고추장, 반찬 나눔을 통해서 시장보고 물건을 살 때 잘 고르는 방법이며 생활의 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겁고 보람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우면서 더 많은 이웃을 알아가고 소통하였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만나기가 어려우니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웃만들기 활동의 주된 취지인 ‘이웃을 만날’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코로나19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업운영을 위한 활동이 된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활동을 진행하는데에 과도한 제약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을 처음 운영하다보니 각 세부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영수증 구매내역을 보며 확인하여 맞춰야 했는데, 이러한 집행지침에 맞춰 예산을 지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Q. 앞으로 ‘세대아우르기’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마을의 세대아우르기는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번 이웃만들기 첫 활동을 통해 마을의 어르신과 중년 여성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 먹거리를 함께 알리는 세대아우르기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또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반찬나눔 활동을 한 후, 모임 참가자들이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계시는 주변 독거노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 활동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세수대야 농여성과 함께하는 “누리GO, 즐기GO”

사업지기 반은경, 안정인, 한영숙

활동소개 강북구의 농인 여성들이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청년들과의 활동도 함께 함으로 소통의 장도 넓히며 화합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몰랐던 지식, 상식을 배우게 되면서 잘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어 좋았다. 비누를 함께 모여 만들고 이웃 어르신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만들 때의 힘듦도 잊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수어통역으로 해설도 함께 들으니 전에는 몰랐던 우리 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들기를 통해 자칫 우울할 수 있던 코로나시기를 잘 극복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

낯선 서로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았는데 이 모임을 통해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한걸음씩 다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한계로 농인들은 청인들과의 많은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모임으로 이웃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만든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작지만 무엇이든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심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웠던 계획을 취소, 수정하고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으로 다 같이 모임 수가 없어 제일 아쉬웠다.

Q. 앞으로 ‘세수대야’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올해 취소되어 하지 못했던 나들이 계획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통역을 함께 했던 북한산 둘레길 걷기에서 농여성들이 그동안 몰랐던 여러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듣게 되면서 즐거워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농여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알콩달콩 고추장과 매실장아찌를 담가 반찬을 만들어 나눠요

사업지기 이춘화, 김옥자, 민병옥

활동소개 전통 장 담그기와 발효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이웃과 함께 장을 담가보고 더 나아가 장 담그기를 전파하고 레시피를 공유하며 한 향아리에 함께 장을 담가 관리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돈독함을 유지하고 새롭게 장 담그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얼굴은 알고 있지만 관계가 소홀 했던 이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도 더 높일 수 있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이다 보니 장소 선택이 한정적이었던 것이 어려웠다.

Q. 앞으로 ‘알콩달콩’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음식은 실제로 해보았더니 생각보다 챙길 것도 많고 어려웠던 것 같아서 다음에 한다면 이웃들과 상의해서 비누, 도자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



오붓한 이웃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지기 박만성, 이선길, 강준구

활동소개 우리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나서서 동네 청소를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마지막에 동네 청소만 1회 진행하여 아쉽지만, 모임 구성원들끼리는 마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단합이 되어 좋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내 주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봉사할 시간이 적었다. 그로인해 제빵은 진행조차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

Q. 앞으로 '오붓한 이웃'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 활동이 아쉬워서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하소서

사업지기 김정은, 박이향, 구의정

활동소개 운동으로 이웃과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자조모임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회원들의 메시지

“굳어진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조금씩 근육이 풀리고 부드러워졌어요.”

“등산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짐을 느꼈어요.”

“조기폐경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운동을 통해 활기찬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내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강북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19로 적극적인 모임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스트레칭하며 고관절 통증이 줄어서 좋았어요.”

“다가 올 갱년기 질환 대비에 도움이 되었어요.”

“차지구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사업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또 불편했던 신체부위가 개선되어 좋았어요.”

“함께 운동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보람 있고 행복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운동했어요.”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에 쓴 그대로 지출을 하려니 계획처럼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때문에 회원 모집을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운동하소서’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공모사업 지원은 힘들 것 같지만, 마무리활동을 하며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다음에도 계속 지속하자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해보려 한다. 공모사업 공지 전까지는 자체 모임으로 전환하여 소규모로 운동모임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



은행빌라주민회 행복한 은행빌라 주민되기

사업지기 박인선, 정옥순, 김다현

활동소개 은행빌라 주민들 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축대를 없애고 생겨난 빌라주차장 앞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난 재활용 포장 용기와 쓰레기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주민들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빌라 내의 주민들이 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주변의 빌라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좋아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다. 오래된 빌라라서 여러 가지 보수, 수리 문제들이 생길 때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두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되고 가정 내에 자녀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민들과 대면활동이 어려웠고, 8월에는 너무 더워서 화단조성을 위해 무거운 흙과 화분들을 옮기는 활동이 어려웠다. 좀 더 많은 대면활동이 있었으면 꽃 종류라든지 화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활용분리배출에 관해서 강사를 초청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아쉽다.

Q. 앞으로 ‘은행빌라주민회’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여태껏 모르고 지내던 것들을 알게 되어 공부가 되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나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레스트의 꿈 수유동 경단녀들의 경력 살리기 모임

사업지기 이지윤, 조묘경, 신승분

활동소개 이웃들과 함께 손바느질 만들기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시작으로 이웃 공동체 만들기를 실현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손바느질 만들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만남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점이 가장 보람된 점이다.

지속적 소통을 하는 8인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자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나은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들을 위한 소통의 즐거움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직접 바느질을 하며 대면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Q. 앞으로 '포레스트의 꿈'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관심이 있고 공동체 만들기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 추후 지역 부녀회로 발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핸드메이드(DIY) 사랑! 행복한 마을 함께 만들어요!

사업지기 가마다 미유끼, 미야모토 미도리, 송문자

활동소개 EM을 사용해서 환경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EM비누, 세제, 화장품 만들기를 했고 EM발효액 활용법을 이웃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리고 마스크끈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양초 만들기, 뜨개질(가방, 수세미, 마스크끈)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여 여러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깝게 지내는 것, 그리고 EM을 알리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생겼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어렵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 때, 나름대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간식에 대해서 불만을 들었을 때, 줌(Zoom)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더운 날씨 속에 물건을 받고 나눠주고 참가자 집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다. 줌(Zoom)으로 모임을 진행해야하고 여러모로 나의 지식,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주민을 동원하지 못했을 때 아쉬웠다.

Q. 앞으로 ‘핸드메이드(DIY) 사랑!’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으로 여러 경험을 했고 다음에 그 경험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활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하고 싶다. 많은 주민들이 쉽고 부담 없이 참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고 주민들의 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행복하게 놀아요

사업지기 정미숙, 김수정, 장나진

활동소개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서로 만나거나 활동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숲체험, 도자기만들기 체험, 다양한 신체놀이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대면활동이 가능해지기를 많이 기다렸다. 많이 기다린 만큼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연이어 활동을 하면서 답답함이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는 참된 시간이었다.

인사만 하고 어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만나서 함께하며,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 등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하고 다음 만남을 계획하며,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이가 된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이다.

Q. 앞으로 ‘행복하게 놀아요’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간담회를 하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계속 진행되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하고 있어 향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을 마친 후에도 좋은 정보나 행사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고, 가깝게는 크리스마스파티로 키즈카페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모임활성화



모임활성화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연결지점을 발견합니다.

2021 모임활성화 활동 팀

강북구 청년 연극단

미인도

엄마가쏘아올린공연

함께밥

모두하우징

手·卉·美(수세미)

책끼고 도란도란

햇빛마을

몸지Club

숲놀이연구모임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강북구 청년 연극단

사업지기 도예림, 문성규, 박범찬

활동소개 강북구에 거주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강북구의 역사, 문화, 일상 탐구를 주제로 지역 내의 숨은 작가의 작품을 공모하여 시민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모임을 시작하였다.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연극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낭독공연’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참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단순히 이야기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취미를 함께 즐기고 예술 활동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2020년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대응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사업 운영 방법에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영 방법에 큰 변화 없이 다소 보수적이고, 작년에 비해 발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앞으로 ‘강북구 청년 연극단’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활동으로 운영했던 ‘시민참여 워크숍’은 큰 도전이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체적으로 역량 발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하우징집수리봉사 주민모임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모임

사업지기 안장호, 신근섭, 현국환

활동소개 강북구 내에서 집수리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봉사 참여자들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밀착형 활동을 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정부 각 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주거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주민이 만족해하며 고마움을 표할 때 보람을 느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단체를 운영함으로써 회원들 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전파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자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효과를 못 드릴 때가 있다.

회원 및 주민 기량향상을 위한 집수리 아카데미의 경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원금의 한계로 강사 섭외, 자재 구입 등 어려움이 많다.

Q. 앞으로 ‘모두하우징집수리봉사 주민모임’ 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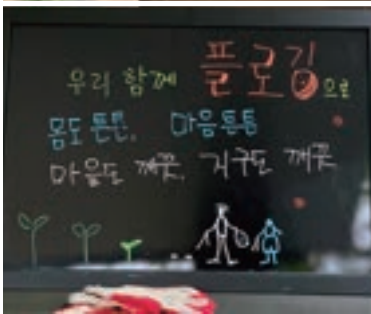
다소 축소되겠지만, 가급적 월 1회 정도는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올해보다 더욱 알찬 모임과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료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가 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간단한 집수리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더욱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몸지Club 몸살림 지구살림

사업지기 정선영, 정은경, 원세연, 박주미

활동소개 함께 걷기, 체조 등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동시에 에너지 캠페인과 쓰레기 줍기를 통한 환경인식개선 활동을 하였다. 환경 관련 강의 듣기와 독서 모임 활동을 하며 환경보호 실천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고, 제한된 활동과 비대면 생활로 더욱 쓰레기가 넘치는 현대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지만,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또, 편하게 누리며 살다보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기보다는 무언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광고에서처럼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더욱 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라도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쓰고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이 생각을 주변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데,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환경오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시간이다. 이런 중요한 환경 문제가 곧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방법 등을 많이 찾고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돌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았고, 앞으로 좀 더 이웃과 아는 것을 배움을 통해 서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절실히 돌봄의 시간. 이렇게 몸지Club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이 미래의 돌봄의 해법이 아닐까? 마을공동체 자체가 돌봄이 아닐까 생각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되다보니 더 많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많이 아쉬웠다. 강의를 들을 때면 정말 많이 알고 싶은데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빨리 많은 이웃에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Q. 앞으로 '몸지Club'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 모임과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 코로나시대에 맞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 활동을 통해 정보 공유와 단합을 지속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특히 내년에는 '몸지Club'에서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보려고 한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더 돌봄의 의미를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 돌봄 뿐 아니라, 장년의 돌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숙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접해 볼 계획이다.

미인도 mamma Mia

사업지기 곽정자, 이경희, 양해광

활동소개 골목 심층 인터뷰로 미아동에서 세대 간 소통을 교류할 수 있는 'Talking Mia' 활동을 하였고, 청년들의 지역활동 활성화 및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C.C.C. Mia(Culture, Community, Content)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큰 보람이다.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참여자를 찾아 나서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활동하였다면, 올해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찾아와 스스로 활동 내용을 기획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주민이 많아졌다.

활동 안에서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진 것도 큰 성과이다. 어린 아이들부터 50대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활동에 참여하며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더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활동을 못하는 기간이 생기자 보니 활동의 연결성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이다. 또, 홍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어려웠고, 참여인원과 시간 제한으로 참여 의사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2020년과 2021년 미아동 골목은 변화하고 있다. 상가가 바뀌고 상점 고객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청년과 고령자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변화하고 있는 미아동의 골목 모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과거의 미아동 골목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전의 미아동을 다시 볼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Q. 앞으로 '미인도'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들이 모임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월 1회는 정규 모임을, 그 외에 상시적인 모임을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청년들이 변화하고 있는 미아의 모습을 아카이빙하는 활동을 기획하고자 한다.



手.畝.美 (수세미) 수작업을 통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눠요

사업지기 김윤영, 최윤숙, 성미미

활동소개 수세미를 직접 키워보고 친환경 수세미, 세정바를 만들며 이웃과 소통하는 활동을 하였고, 미세플라스틱, 화학세제의 위험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수세미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수 있었고, 내년에 각자의 집 베란다에서 키워볼 수 있게 씨앗나눔도 진행하였다.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수세미 모임에 속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통된 관심사로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해 아쉬웠고, 더 자주 모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수세미’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옥상 텃밭에 심은 수세미를 아이들이 직접 수확하고 천연수세미로 만드는 체험을 하도록 하고, 환경에 관한 동화책을 읽으며 어려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 (엄쏘공) 몸으로 보여주는 책

사업지기 김예정, 김선자, 김선옥, 김선화

활동소개 연극 공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고 이웃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모임이다. ‘가부와 메이’ 시리즈를 함께 읽고 낭독극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여러 단체를 통해 영상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소통하는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번 활동의 보람은 지역 자원의 활용과 연계이다. 자원으로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 키트를 제공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영상을 송출하였다. 마을공동체 책끼모, 함크아(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등과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신규 회원(홍미자, 김심희)이 유입되었고 공연의 배우로 활동하게 된 것이 공동체 모임의 변화이자 성과이기도 하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대면으로 활동해야 하는 부분도 비대면으로 활동해야 했던 상황들이 힘들었다.

Q. 앞으로 ‘엄쓰공’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교육 연극을 통해 마을 안에서 아이들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임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

지역자원과 주민모임을 연계하여 공연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양화하며 풍성한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규회원 유입을 위해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공연 작품의 내용을, 장애인 성교육 공연 등, 소외계층을 위한 것으로 구성하자는 아이디어 들도 논의하고 있다.



책끼고 도란도란 75세가 넘으신 이웃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관계맺기

사업지기 전정은, 김장석, 김선희

활동소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림책테라피 강좌 운영 및 1:1 매칭 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활동을 하고자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림책 테라피’,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읽어 드리기’라는 주제로 모여 다양한 것들을 함께 했다. 중년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림책의 즐거움을 맛본 어르신들이 ‘언제 오냐?’고 묻기도 하신다. 이번 활동에서 그림책은 지역의 중년과 노년이 만나는 소통의 도구로 잘 활용되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만들어드리자고 시작한 사진 강좌와 달력 만들기는 중년인 우리들에게도,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었다. 사진을 인화하였는데 그 사진으로 함께 깔깔깔 웃으면서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또 지역에서 어르신을 위한 김장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 청년과 또 다른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모임에서 날마다 힘을 얻었던 일은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을 100일 동안 필사 한 것이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짧은 글 한 편으로 매일 읽고 쓰고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은 종료되었어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다른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계속해보고자 한다. 이번 책끼고 활동은 중년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마음이 모아진 것이다. 그림책을 시작으로 하여 가족공예, 뜨개질, 김장봉사 등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재미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가고 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이지 마세요!’라는 공지이다.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커피숍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는 회원과 마찰도 있었다. ‘그래도 모여서 밥 한 번은 먹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커피 한 잔은 마셔야 하지 않나?’ 서로의 의견이 달라 중간에 여러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과정을 통해 모임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도 되었다.

Q. 앞으로 ‘책끼고 도란도란’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원들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그림책으로 내 마음 챙기기와 자기 계발서를 함께 읽고 비경쟁토론 하기, 미술치료, 뜨개질, 전래놀이, 글쓰기 등 서로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모임을 유지하며 공유하려고 한다.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함.크.아) 함께 배우며 살아가기

사업지기 신영아, 김기주, 임성이

활동소개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 환경과 관련된 강좌 운영과 환경용품 만들기, 베품시장을 통한 재활용 독려 활동 등을 운영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걱정이 많아졌던 엄마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위안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활동의 보람이다. 또 학교도 가지 못해 친구들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비록 서너명씩 마스크를 쓰고 짧은 시간뿐이지만 만나서 놀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찼다.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짧게라도 친구를 보고 와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뿌듯할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무언가 활동하는 것으로 엄마들이 만족했다면 올해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무언가 만들고 활동하는 것을 매우 행복해했다. 우울함을 떨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참가를 약속하고 계속 활동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을 키트로 제작하여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송편을 빚으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는 인사말을 건내와서 뿌듯했다.

대규모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는 활동은 지역 청소년들과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지역 골목에서 쓰레기를 줍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자신들이 할 것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마을공동체에서는 환경강의를 많이 진행하여 참가자로 참여도 하고 직접 공동체에서도 강의를 개설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체감되어 뿌듯했다. 특히 환경도서 읽기를 같이했던 모임원들은, 올해 처음 온라인 책모임으로 시작하였지만, 채식도시락을 주문한다든지, 친환경수세미 사용하기, 삼푸바 만들어 쓰기를 시작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왔고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꾸준히 모임 진행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책모임을 하고 싶어 참여하였으나 환경강의에도 참여하고 단 한 명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많아 평일 오프라인 모임은 힘들지만 마을공동체에 대해 처음 알고 변화하는 모습이 뿌듯하다.

지역에서 시끄럽게 느껴지던 청소년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거나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이 단순히 그들 또래집단의 재미라할지라도 기특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도 신기해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하였다.

과거에는 소심하게 모임에 참여하고 사라졌다면 올해는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이야기 하거나 요구하고 감사함을 더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지역공동체의 모임 참가도 이전과는 다르게 시도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응방법을 익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모임 진행 노하우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올해는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사적모임이 허용된 이후에도 인원 수 제한, 식음료 섭취 금지 등 제한이 많았기에 오히려 작년보다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좋은 활동도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 제안자 외 3명 정도만 모일 수 있고, 이미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활동반경 등을 모르기에 참여를 꺼리게 되어 전혀 알지 못하는 신입이 참여하는 경우 기존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통 아이들의 모임이 있을 때 부모는 근처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부모가 모임을 할 때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족끼리도 친해지고 독박 육아에서도 자연스럽게 해방되어 친밀감을 키웠는데 코로나19로 인원수와 공간이 제한되면서 아이들만 혹은 부모들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육아부담이 늘면서 참여가 힘들어졌다. 온라인 모임의 경우도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의 교육용으로 인터넷 기기가 쓰이는 경우도 많고 아이를 옆에 두고 본인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기에 진행과 참여가 힘들었다.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게하고 방역교육 등을 철저히 지도하면서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면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에, 공동체활동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더욱 아쉽다.

Q. 앞으로 '함.크.아'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온라인 모임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보았다.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웠거나 아이가 없는 성인의 경우 온라인 모임에 참여도도 높고 진행이 매끄러웠으나,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경우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지 않아서, 또 사회와 지역에서 만난 경우 자신의 주거공간 및 사생활이 공개되는 상황의 온라인 모임에는 부담감을 느끼기에 온라인 모임이 힘들었다. 아이들 대상 사업 또한 온라인의 경우는 집중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만을 위하더라도 오프모임을 희망하였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배분하여 진행하되 참여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충족시키는 모임이 되어야겠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했다. 아이들의 경우도 함께 하는 것에 만족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은 진행이 걱정되었지만 공통관심사로 오히려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초반에 함크아는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가진, 지역엄마들의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엄마들과 아이들의 나이대도 다양하지만 같은 취미나 관심,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모임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빠르고 거창하게 무엇을 이루는 모임보다는 소소하게 친목을 다지고 마을의 작은 부분부터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 함께하는 저변을 서서히 넓히는 것이 우리 모임과 어울리는 활동이며 미래인 것 같다. 예전부터 하던 공동육아, 아동교육에서 학부모교육과 환경, 미래교육으로 범위는 넓히고, 운영방법은 지금처럼 소규모 모임들을 이루며 따로 그러나 또 함께 커나가는 내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자 한다.

함께밥

건강한 우리밥상 공동체

사업지기 홍석화, 김은주, 이수영

활동소개 배달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식생활 개선과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건강한 밥상이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키운 제철 농산물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밥상을 차리며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온라인이라 농인에게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원봉사자로 수어통역사까지 섭외하여 ‘건강 먹거리 대중강연’과 ‘제철 반찬 조리법 연구’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제철반찬(강된장, 가지무침, 늙은오이무침, 부추겉절이, 고추다짐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고기, 배달음식, 인스턴트 등으로 식탁을 채우지 않아도 제철반찬으로 차려진 식탁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가정의 식탁도 조금씩 건강한 밥상으로 차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 재료를 소분하여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없다보니 강의 이후 지속적 만남을 기획하고 모색하는거까지 연결이 쉽지 않아 아쉬웠다.

Q. 앞으로 ‘함께밥’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반찬조리수업에 대해 참가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무척 바라셔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끝났어도 반찬조리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보려고 한다.



햇빛마을주민협의회 햇빛마을 아름다운 동행

사업지기 권용수, 유영자, 박경숙

활동소개 지역 돌봄사례 탐방 등 햇빛마을 주민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주거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생활지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오라차차’ 활동에서 인생곡선과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주민협의체 운영진들이 서로 이해하고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스한 동행’ 활동에서는 ‘함께하는 균형 운동’을 진행하여 집 안에만 있는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 사랑방에서 함께 체조, 운동 등을 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덕분에 우울한 부분도 줄이고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찾아가는 동행’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세 가구를 추천 받아 화재경보기 설치, 샤워수전 교체 등의 수리를 도와드렸고, 마무리 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햇빛마을주민협의체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 안에서 돌봄, 건강, 주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만 보아도 공동체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워,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는 ‘오라차차’ 활동과 함께하는 균형운동과 건강수다방의 활동을 하는 ‘따스한 동행’을 촉박하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더 답답한데, 마당과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활동을 할 수 없어 공간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 모임 인원제한 등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앞으로 ‘햇빛마을주민협의체’ 모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햇빛마을주민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의 재능기부를 받고 보건소 및 지역 의원들과 연계해서 낙상예방운동과 건강수다방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배움의 장을 계속 펼쳐갈 예정이고 마을공동체 사업 에도 한 번 더 지원하여 지역주민들과 재미있고 의미있게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공동체공간 활성화



공동체공간활성화는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열린 운영과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2021 공동체공간활성화 활동 팀

놀멍쉬멍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이음줄진흥원

한누리에술협회

놀명쉬멍 창의놀이터

사업지기 송민정, 박영진, 김병주, 서혜선

활동소개 놀명쉬멍 공간 활용하여 사랑방을 운영하며 이웃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놀이하며 소통하는 활동을 한다. 퀼트 공예, 마크라메, 양말목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활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 등을 진행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이라 적은 인원이었지만 지역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안전한 방역 지침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하면서 단절되어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획했던 활동을 축소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된 점이다.

놀명쉬멍의 활동이 3년차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이 많이 알려졌고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해지고 이용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 놀명쉬멍이 지역에서 마을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모임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여가 문화 활동시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의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다 준 점이다.

모임 운영진 및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운영진의 업무 부담과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된 일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참여 인원 수를 제한해야 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운영진들과의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하려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당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진행하게 되어 마음나눔과 격려의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이 아쉬웠다.

Q. 앞으로 ‘놀명쉬멍’ 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쉼터와 배움터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들과 소통하여 운영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보살피는 다락방 되살리는 다락방

사업지기 이진숙, 박종우

활동소개 시장 내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어린이 풍물단, 목공교실, 바느질 교실, 요리교실, 체조 등의 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어린이돌봄 활동을 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올해의 주된 활동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었고 그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다. 방과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목공, 요리, 바느질 교실 등을 통해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유시장을 비롯하여 수유1동에서 다락방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처럼 아이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되려면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여타의 프로그램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해야했다. 그래서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안타까웠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Q. 앞으로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2년에 다락방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층 공간을 강북연극협회가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 세부 규칙 등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여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는 주체가 변동될 듯 하다

다락방 운영위 체계가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 보다는 저마다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 및 단체들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열망이나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는 듯 해서 아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다락방 운영위의 가동이 필요할 듯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어울릴수 있는 활동기획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하다.



이음줄진흥협회 만남과 나눔의 울타리

사업지기 김수현, 김순자, 김선희, 엄해정

활동소개 이음줄의 공간을 활용하여 중년, 어르신과 함께 건강한택견, 동요 배우기, 노래교실 등의 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답답한 일상속에서 잠깐씩이나마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힐링하면서 지역소식도 공유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며 처음 만난 분들이 친구가 되는 일들이 보람되었다.

동심의 동요배우기 활동에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인데,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모임 인원이 제한되어 원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때문에 어려웠다. 또, 활동의 진행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Q. 앞으로 ‘이음줄진흥협회’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인, 여러 단체 혹은 기관과 연계하여 강북문화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한누리예술협회 모퉁이(모여서 통하는 이야기)

사업지기 현인숙, 강숙인, 윤석희, 김도현, 유미애

활동소개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을 활용하여 책을 돌려보는 '북크로싱', 주민 참여 바자회 '공간 아나바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재능 change', 전문강사에게 연극, 시낭송, 트로트 등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는 '공간 DAY'의 활동을 진행하여 공간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예술계와 마을 주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에 활력을 주고, 움츠렸던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였다. 또,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한누리예술협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픈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 이웃을 알게 되고 좀 더 가까이 지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한누리예술협회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예술인들과 일반인들에게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다보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신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직원분들 덕분에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Q. 앞으로 ‘한누리예술협회’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며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주고, 이웃이 내민 손을 선뜻 잡아주며 같이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주면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마실 공간으로 만들어 내 더불어 같이 가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골목만들기



골목만들기는

골목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해 골목에서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2021 골목만들기 활동 팀

능안골주민모임

두리하나

두꿈팩토리

삼·이·사

두리하나 이웃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골목환경 만들기

사업지기 강미선, 양지호, 최윤정, 김화니

활동소개 번2동의 문제가 있던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그 골목을 활용하여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골목만들기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골목카페'를 운영하여 골목 공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골목배움터', '골목극장'을 통해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환경 관련 강의, 영화 상영을 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행동 변화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 골목 장터인 '자두마켓'을 열어 자원순환의 실천과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골목카페’를 통해 주민들과 골목공터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골목의 바닥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문제해결실천을 위해 약 150여 명의 주민에게 주민동의를 서명운동 활동을 하였다. 또, 골목 공터는 명확한 장소의 이름이 없이 ‘롤러장’으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려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한 이름 짓기 공모전을 열기도 하였다. ‘골목배움터’ 활동으로 환경 강의를 듣고 환경 캠페인이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등의 활동을 하였고, 양말목 공예체험으로 컵받침, 냄비받침, 물통가방, 바구니, 연필꽂이, 겨울나무 웃, 키링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골목장터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골목의 나무에 겨울나기 옷을 입혀주기도 했다.

‘골목바자회’에서는 양말목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고, 환경그림책 읽기와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독후 활동을 실시하여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즐겁게 참여하였다. 환경실천서약 사랑의 온도계 스티커 붙이기 활동으로 참여자들에게 환경위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또,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을 기부하기로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다. ‘골목극장’을 통해 환경 관련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가족 모두가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 의식, 더 나아가 작은 실천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두리하나 골목카페를 통해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공터를 다시 생각해보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양말목 공예 체험 활동을 계기로 주민들의 모임 활동이 계속 이어져 나갔고, 이번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홍보의 계기도 되었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방법과 재활용의 중요성, 업사이클링의 의미 등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현수막 디자인을 직접 해야했는데 처음 해보는거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어려웠다. 또, 대부분의 활동이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불가한 점이 어려웠고, 8월의 경우 무더위와 휴가철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도 활동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참여의 제한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가 불가능했고, ‘자두마켓’의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 환경강의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갑작스런 운영의 변경과 대면 모임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락이나 홍보가 어려워져 골목바자회(자두마켓)에서 다양한 품목을 갖출 수가 없어 아쉬웠고, 골목카페 마지막 회차 행사에서는 번돈초 학부모 동아리 ‘캘모모’와 협력하여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예정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다.

Q. 앞으로 ‘두리하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 활동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웃들과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모임 활동을 자주 갖기로 했다.

두꿈팩토리 지역 재생 자원을 활용한 미아동 골목 소통 프로젝트

사업지기 고경진, 이춘원, 이기자, 김성희

활동소개 골목공간을 매개로 골목모임 커뮤니티를 결성하고자 하는 모임이다. 주변양말 공장과 연계하여 양말목공예 활동 등을 하고 공예활동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을 전시하거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골목사업을 통해 골목에 다양한 활동을 주도할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두꿈팩토리가 골목 어르신,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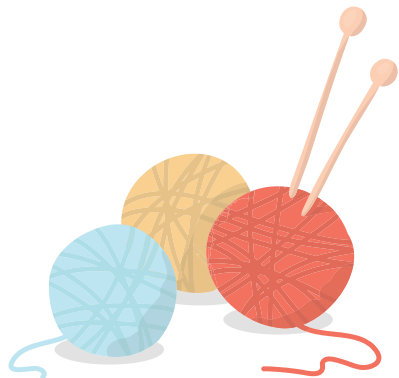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마음들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 골목에서의 큰 변화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모임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어려웠다. 다양한 모임과 만남을 통해 더 깊이 골목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

Q. 앞으로 '두꿈팩토리'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역 자원들(재능 있는 엄마들의 강사진 활용, 어르신들의 강사 활용 교육 등)을 활용하고 싶고, 다양한 강좌들을 만들어 서로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또,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과 환경 실천을 함께 하고 싶다.



지역사회 의제특화



지역사회의제특화

주민주도의 마을·지역문제 해결로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마을 기록, 기후위기 등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입니다.

2021 지역사회제특화 활동 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

행복한 소나무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리가 보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지기 김주희, 정우현, 이소연

활동소개 코로나19 환경에서 장애(농인)를 가진 사람들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강의, 수어놀이터 탐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소보사가 강북구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수어를 하는 모습을 마을분들이 힐끔거리며 어색해하던 눈빛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공유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많은 행사 및 교육 현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에서 만나면 가볍게 수어로 인사하는 비장애인 이웃들도 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인과 농인이 서로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않다. 하지만 수어간판 만들기, 수어놀이터, 소리가 보이는 마을 탐방 등을 통해 농문화를 경험하고 농인을 병리적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시선들이 참 반갑고 고맷다.

소리가 보이는 마을 가이드 양성은 농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은 당사자주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본 과정을 통해 그림책, 메타버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인과 농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대부분 특수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보사는 국내 유일한 수어 중심 교육기관으로 농청소년들에게 완전한 수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청소년들은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을 또래 농청소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수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당사자가 직접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어놀이터, 소리가보이는마을 가이드양성 이후 소보사 탐방 등을 기획하였으나 사업의 특성상 대면이 필수적이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움이 크다. 특히 수어놀이터의 경우 인수동에 거주하는 아동 및 부모님들의 호응이 컸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하게된 점이 아쉽다.

소리가 보이는 마을 가이드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공간조성을 진행하였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었다.

갑작스런 거리두기4단계로 인해 다과비 및 식비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포장하여 각자 집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을텐데 장기간 다과비 지출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속된 점이 어려웠다.

Q. 앞으로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강북구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강북구 마을분들의 대부분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 다른 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인권감수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소보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강북구 내에서 청인과 농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다.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 변화하는 강북구, 마을기억남기기 프로젝트 “천개의 인생레시피”

사업지기 김명희

활동소개 재건축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고, 전시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한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알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 인터뷰 및 자료 발간’ 활동으로 강북구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중 강북구에서 꾸준히 지역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미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알고 기록하여 강북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다 따뜻해질 수 있길 희망한다.

공공재개발 이슈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기록 남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건축으로 이전해야 할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취약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 대책 없이 이뤄지는 재건축의 폐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Q. 활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간담회 및 모임 활동이 불가능한 시간들이 지속되어 네 명 이상 모일 수 없던 점이 운영상 어려웠고 활동의 진행이 늦춰지는 원인이 되었다.

전시회 직전 참여자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행사 일정이 한주 미뤄지는 등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개발 등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활동들이 진행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

Q. 앞으로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을 기록남기기’로 강북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미아동, 2022년 번동 등 강북구 13개 동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여 책자로 발간 하고자 한다. 또 다른 기록으로 재개발 재건축 전 강북구 골목 곳곳의 사진을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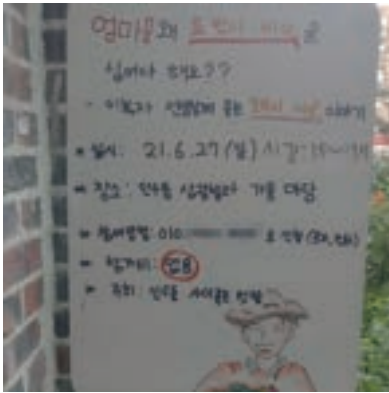
천천히 느리게, ‘빌라농부’입니다

모임명 | 사이좋은 텃밭 텃밭 통한 사이좋은 이웃 만들기

모임유형 | 이웃만들기

사업지기 | 한동호, 박의진, 이계진

활동소개 | 토박이 씨앗으로 텃밭농사하고 농사법 강의 듣고, 가정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만들어서 나온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한 모임이다.



Q. 자기소개와 활동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텃밭 활동을 올해 진행한 박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수동 516 번지에 빌라 단지가 있어요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살다보니 작은 정원이 있는데 겨울에 되게 앙상해서 보기에 안 좋고, 봄, 여름, 가을이 되어도 꽃이 많이 없고 풀만 무성한 화단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하다가 저 정원을 텃밭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가 떠서 신청을 하게 되었구요. 하는 김에 토박이 씨앗을 심어보자, 그리고 퇴비라고 하죠? 퇴비도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걸로 만들어서 퇴비를 해보자. 그래서 작은 텃밭을 토박이 씨앗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사용해서 가꾸게 되었습니다.

Q. 텃밭 일구는건 많이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퇴비로 쓰고 토박이 씨앗을 심는 것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하시는데 되게 폭넓게 텃밭 활용을 해오신 것 같아요.

활동을 들으니 되게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 딱 하나만 선택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일단은 아무래도 키우다보면 작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 작물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눠먹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세 번 정도 작물을 빌라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감자랑 깻잎. 그래서 깻잎전도 해서 나눠먹고 고구마로 고구마 피자까지 해서 나눠 먹었어요. 특히, 깻잎전을 해서 나눠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가호호 다니면서, 같이 먹지는 못하니까,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퇴비통에다 고양이들이 똥을 싸서 파리가 꼬여 미관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이에요. 퇴비에서 나는 냄새는 없는데 퇴비가 폭신하니까 거기에서 고양이가 똥을 싸 거예요. 빌라 주민 한 분이 불편함을 제기했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지금은 똥도 없고 오히려 미관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 같아요.

Q. 아이들에겐 너무 귀한 경험이였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말이죠.

어른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갖다 드리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라고 해서 갖다 드리게 했어요.

Q. 너무 뿌듯했겠어요. 요즘 상황에 빌라 내에서 아이들을 보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했던게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에 품이 많이 드셨을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증빙자료들도 많고, 그런데 연결의 기쁨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나는 나에게 올해 좋은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주변사람들 챙기는데 급급하잖아요. 올해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너무 재밌게 해서 힘들거나 그런 생각은 못했구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는 빌라에 반상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주민들을 마주쳐도 여기 사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인사도 대충하고 혹은 못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텃밭 활동을 하고 나서 매번 대청소를 했었거든요. 주민분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반상회도 해서 ‘이웃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건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더 열심히 어떻게 작물을 키우는지 공부하거나 했어야 하는게 아니었을까 반성을 할 만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년 한해 저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인터뷰이 사이좋은 텃밭 박의진

인터뷰어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사무국장 문지혜

우리들의 숲놀이터

모임명 | 숲놀이연구모임 몸튼튼 마음튼튼 관계튼튼, 튼튼숲놀이

모임유형 모임활성화

사업지기 진복희, 안현숙, 송영희, 김세진

활동소개 주민을 대상으로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하고 강좌를 통해 숲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활동을 한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 중 올해로 활동 9년차를 맞는 팀이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강북구의 유일무이한 모임으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강북의 자랑인데요. 이미 소문들어서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멋진 자연과 함께 웃고 즐기는 숲놀이 연구모임입니다. 매년 강북구의 숲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숲놀이터를 열며 남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숲놀이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는 그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가을이 한창 멋지게 무르익는 계절에 올해 마지막 숲놀이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귀한 마지막 시간을 농칠세라 숲놀이터가 열리는 오패산 유아숲체험장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숲체험장 입구부터 아늑하고 예쁜 길이 시작되어 설렘 가득한 방문길이었습니다.

숲놀이터에는 참여하는 가족들이 허기지지 않게 맛있는 빵과 음료를 준비해 둔 돗자리 매점부터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나무사이를 밧줄로 연결해 아이들이 재밌게 타고 놀 수 있는 해먹과 나무그네가 있었고 나무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자연재료를 활용해 체험장 곳곳을 예쁘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숲체험장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부스도 열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이용해 숲에 사는 곤충을 만들어보는 '간식만들기',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나만의 '노트만들기', 아이의 소원을 적고 그 마음을 담아 만드는 '소원공만들기'.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 행복해보였습니다. 그날 현장을 방문한 인터뷰어인 저도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보고만 왔답니다.



활동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모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숲놀이터의 현장은 야외였지만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받았고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여유로워지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숲놀이연구모임을 자세히 알고 싶어 모임원 중 한 분이자 적극적으로 활동과 모임을 이끌고 계신 김세진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했던 것! 숲놀이연구모임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 모임의 시작은 토닥토닥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토닥토닥은 숲놀이 공동육아로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2012년생 아이를 둔 엄마들의 모임이고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 그 무렵 고민지점들도 비슷했고 다들 초보엄마라서 같이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해서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2013년에 ‘아이들의 놀이가 방학이다.’라는 강좌가 열리게 되었는데 김세진님은 이 강좌에 참석하면서 토닥토닥이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모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시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나갔던 분이 건강상 쉼이 필요하여 모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해졌고 이때부터 김세진님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임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임의 방향성도 갖춰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활동의 관심사가 바깥놀이로 옮겨가고 숲놀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숲놀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마을텃밭 활동이나 숲밭줄놀이를 모임에서 함께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숲놀이 수업도 받고 몇 년간 숲놀이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엄마들은 우리가 즐겁게 경험했던 것을 주민들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강북구에 필요한 강좌’에 숲놀이를 제안하여 기초반, 심화반을 개설해 배움의 과정을 강북구에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마을교사와 마을배움터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교사를 중심으로 ‘숲놀이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숲놀이 모임이 되었고 마을공동체 사업과 함께 성장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숲놀이 활동에 참여한 가족 중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 상처를 받은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말도 안 섞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숲놀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점차 안정되어가고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때 숲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가족은 여전히 숲놀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력에 다시 한번 놀랐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숲놀이의 자랑거리죠. 아빠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 엄마와 아이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빠들끼리도 친해져서 품앗이 육아도 하고 가족엠티도 다니면서 참여 가족끼리 많이 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이 이어진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이 든든한 내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놀이를 할 때마다 체력소모가 많아 힘들 때가 많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띠 미소나 즐거운 모습에 힘들어도 참고 숲놀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숲놀이 또 언제하냐’, ‘꼭 연락달라’, ‘왜 이제 알게 되었나 아쉽다’라는 등등의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임원들 모두가 활동이 즐겁습니다.”

숲놀이연구모임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가장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 정기적으로 숲놀이를 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벌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강북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 나혼자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꾸준히 모임을 지속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활동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모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세진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강북구가 가진 자연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키즈카페 말고 자연에서 놀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짧게나마 숲놀이연구모임에 대해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을 몇 줄의 문장으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숲놀이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북구에서 “숲놀이터로 나와라! 함께 놀자”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진님의 인터뷰 중 인상깊었던 한 글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밖으로 나와라, 나와서 숲을 찾아가자, 숲은 항상 열려있다”



인터뷰이 숲놀이연구모임 김세진

인터뷰어 마을지원활동가 곽선희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 ‘능안골 골목축제’

모임명 | 능안골주민모임 골목은 살아있다

모임유형 골목만들기

사업지기 최화정, 김세희, 이성광, 박혜영, 김점숙

활동소개 능안골 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골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골목축제 등을 진행하는 모임이다.



북한산 아래 맑은 공기와 한적한 동네, 능안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능안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올해로 세 번째 골목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골목축제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누군가 마련한 장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축제를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능안골 주민모임을 만나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참여자로 지금은 대표제안자로 함께 하고 있는 최화정님을 만나 능안골 골목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 먼저 쉽지 않은 일인데 3년간 능안골에서 골목축제를 진행하고 있으세요. 3년 간의 골목축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골목축제를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2019년에 처음 골목축제를 열었고 당시에는 타로 부스 그리고 칼 갈아주는 부스, 전을 부쳐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음식 나눔이 있었어요. 전 부치는 맛있는 냄새가 있어야 동네잔치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 축제 2, 3회때는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두 번째는 음악이 함께하면서 축제가 더 크게 확장되는 느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원순환물품 판매, 자원순환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음악회 분위기로 축제를 진행해서 그런지 음악이 가장 좋았어요. 일회용품 사용을 없애기 위해 떡과 굴 등 다과 나눔을 할 때 뽕튀기를 그릇삼아 올려서 나눔을 하였는데 이것도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뽕튀기 그릇까지 먹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2019년 골목축제 모습

Q. 그렇다면 3년간 골목축제를 진행하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골목축제를 처음 해본 것은 2019년이었어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주민분들 호응도 좋았고 즐겁게 잘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도 풍부해지고 외연도 확장되는 것 같고 축제가 주민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골목에서 즐거운 축제를 여는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에 진행했던 골목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홍보나 참여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준비하는 우리들도 위축이 되었고 많이 와달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 조차 걱정이 되었죠. 축제 진행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보니 전년도보다 참여자 수도 적었고 방역에 무척 신경을 쓰며 축제를 진행했었어요. 첫째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도 조심스러워 오지 않기도 하고 두 번째 축제는 전보다 더 번창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를 만나 별로 좋지 못했어요.

세 번째 골목축제는, 이제는 코로나19시대에 적응을 하였고 백신도 맞아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주민들도 많았고 가족단위의 참여자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19는 여전했지만 골목축제가 다시 동네잔치로 풍성하게 열린 것 같아 좋았어요. 처음 골목축제를 시작하면서 첫째부터 함께한 주민들도 있지만 해를 거듭하며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으쌰으쌰 서로 힘을 주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제준비는 항상 걱정되고 긴장되는 일이긴 합니다.

지금은 대표제안자이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이 싫었어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하는 것이라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잘 아는 주민이 마을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을 거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3년째 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참여자로 시작해 대표제안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업을 하면서 품은 많이 들지만 결국 나에게 뭔가 더 많이 되돌아오는 느낌,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참여자로만 머무를 걸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마을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관계도 맺고 서로 알게 되고 편한 사이가 되고 마을에서 이런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결국 내가 한 것 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능안골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악인데요. 골목축제에 음악이 참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첫째는 음악이 없었고 두 번째 해부터 음악이 있었는데 골목유랑악단이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최근에 했던 세 번째 축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음악이 더 좋아졌고 능안골이라는 예쁜 골목을 배경으로 주민들이 만나 음악을 들으며 서로 어우러져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Q. 축제의 변화된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처음 참여자에서 대표제안자로 역할변화가 있었는데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소극적이고 어디서 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마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떨결에 잘 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참여자로 함께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할이 커지면서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내가 성장한 것 같아요.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안 한 것 보단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예요. 마을활동을 통해 그림 그리기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Q.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 번째 축제 때는 달고나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마침 오징어게임이라는 시리즈가 빅히트를 하면서 추억의 달고나 게임이 다시 유행을 해서 그런지 골목축제 때도 달고나를 해보려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원래 코너 담당자가 있었는데 어느새 담당자는 없어지고 참여자들이 와서 달고나를 서로 해주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하며 결국 달고나 담당이 여러 주민들로 바뀌는 모습이 재밌고 좋았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까지 동네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어른들과는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Q. 내년에도 골목축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임 구성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꾸려나갈 의지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것이 골목축제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 결국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임에서 내년도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했던 비슷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수해줄 만한 유용한 팁이 있을까요?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축제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홍보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늘 오는 사람만 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홍보물이든 프로그램이든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축제에 와서 또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주민참여로의 확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20년 골목축제 모습



▲2021년 골목축제 모습

인터뷰이 **능안골주민모임 최화정**

인터뷰어 **마을지원활동가 곽선희**

삼·이·사를 만나기 324미터 전...

모임명 | 삼·이·사(삼양동 2통 사람들) 삼양동 2통 전환마을을 꿈꾸다!

모임유형 골목만들기

사업지기 황지영, 김춘화, 최성자, 곽선희

활동소개 30년 이상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좁고 험한 지역 내 거주하는 홀몸노인, 1인 중장년 가구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고, 일상의 우울함 해소와 골목 내 쓰레기 문제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바람에 외투를 여미고 버스에서 내려 삼이사를 찾아갔다. 내리막길을 내려가 다시 언덕배기를 올라가니 보이는 마을관리소. 그곳에서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는 분들이 보였다. 직감적으로 이분들이 '삼이사'분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 재빨리 다가가 일손을 도우며 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추운 날씨이기도 하고 이른 시간이기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었는데, 몇 개월 꾸준히 활동을 하신 결과일까? 나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분, 요구르트를 배달하러 가시다가 현수막을 보고 들르신 분, 빌라 앞 청소하시다가 소식 듣고 오신 분, 먼저 검사하고 가시고는 친구 손 이끌고 다시 오신 분 등...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소식에도 귀 기울이며 맞장구 쳐주며 이웃 간의 정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에 좋은 기운이 느껴지며, 이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즐겁게 참여하시는 삼이사 분들을 보며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증이 커져갔다. 분주한 와중에 짬짬이 삼이사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갈 수 있었다.



아래는 삼·이·사 분들과의 소중한 인터뷰 내용이다.

Q.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네 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순입니다. 주민들 연결과 홍보, 마을관리, 청소 등 잡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황지영님이 반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귀뜸을 주셨습니다. ^^)

저는 황지영이고요. 삼이사 대표제안자이자 실무책임자입니다. 또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혈당과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최성자고요. 저 역시 대표제안자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삼·이·사라는 이름으로 동네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Q. 삼·이·사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뜻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삼양동 2통 사람들이예요. 줄여서 삼·이·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Q. 모이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작년에 보니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서 건강이 걱정 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가볍게 산책도 하시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제가(황지영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 마을분들 특히, 어르신들의 혈당과 혈압을 잴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Q. 삼·이·사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동네 청소와 마을분들의 혈압, 혈당 관리가 주 활동이에요. 동네 청소는 젊은 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점점 깨닫해지는 동네를 보면 뿌듯해요. 혈압, 혈당 체크는 한달에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소도 옮겨보고 시간도 옮겨보고 했는데, 장소랑 시간을 지정해서 하니 마을분들이 ‘아~ 오늘 건강체크 하는 날이지?’ 하고 인식이 되어서 이제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다가 10월부터 활동을 재개했어요. 잠시 멈춘 기간동안 어르신들이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기다려주시는 등 호응이 좋아요. 한번 받으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신지 알음알음 입소문이 나서 친구분 손을 잡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반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큰 힘이 되요. 전날 전화로 주민들에게 연락 문자도 보내주시며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Q. 활동하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어르신들이라 혈압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보지 않아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요. 마을 분 중에 혈당 체크를 했는데 너무 높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셨고 이제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세요.

몰랐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또, 건강 체크를 해보시고 좋으셨는지 지인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활동이구나’ 싶었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는 도와주지는 못하고 혜택만 받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만으로도 힘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웃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퐁퐁 걸어잠그고 만나도 데면데면하게 되었는데, 이 계기로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사람 사는 맛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Q. 마을공동체 활동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내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활동의 원동력이 있나요?

내가 하는 활동이 별거 아닌 거 같았는데 동네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가끔 길에서 만나도 인사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어르신들과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진짜 정이 쌓여가는 것이 보여지니까 힘듦을 잊게 돼요.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가 힘 주고 힘 받으며 활동할 수 있어요.

Q. 활동하시며 아쉬운 점은?

삼·이·사가 공간이 없어요. 다행히 마을관리소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이후 삼·이·사의 바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소문에 지원비가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보건소의 문턱이 높은 마을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삼·이·사를 통해 동네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잠시 쉬을 이어가는 시간이기도 할테고, 누군가에게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내어 마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삼·이·사 분들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사업지기 분들의 노고를 다시금 느끼며, 살기 좋은 마을이란 건 서로의 안부를 쉬 물을 수 있고, 내 일처럼 관심 가져주고, 그로 인해 웃음이 넘쳐나는 마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삼·이·사분들을 만나 나 역시 좋은 기운 담백 받아가는 시간이었다.



인터뷰이 삼·이·사 황지영, 김인순, 최성자

인터뷰어 마을지원활동가 김세진

돌봄의 더블 효과, 서로돌봄

모임명 | 행복한 소나무 강북행복한소나무 노노(老老)돌봄, 우린 외롭지 않아

모임유형 지역사회이제특화

사업지기 김부월, 이경순, 전정순, 장경혜

활동소개 봉사어르신과 독거어르신을 1:1 매칭으로 서로 '노노돌봄'을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년의 우울함을 해소하는 활동을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마을모임에게 수여하는 '서울공동체상'을 강북구의 마을공동체 팀 '행복한 소나무'가 수상했습니다. 원래라면 서울 단위로 함께 모여 시상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강북구마을자치센터에서 대신 상을 전달 받아 찾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소나무는 삼양동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노돌봄 봉사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위한 노노돌봄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독거어르신 발굴과 월 2회 방문 활동, 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독거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와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방적, 일회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돌봄 활동 속에서 사례자가 봉사자로 성장하며 마을 단위의 서로돌봄 방식으로 호혜적 돌봄관계망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행복한 소나무’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나요?

(유정자) 행복한 소나무는 여럿이 의논해서 지었어요.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소나무처럼 으뜸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Q. 강북구에서도 여러 돌봄활동이 있을텐데, '노노돌봄'은 어떤 돌봄인가요?

(형성철) 노노돌봄은 건강한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있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또 아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활동적으로 할 수 없나 해서 건강한 어르신이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건강한 어르신도 연세가 있다보니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픈 어른을 돌보지만 본인도 돌봐주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 돌봄이 13명인데 돌보미들이 같이 하면 합해서 26명, 효과로 보면 더블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어르신이 아픈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그냥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같이 가니까 부담없이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있던 마음도 잘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한가지는 건강한 어르신이 더 건강해지셨다는 거.

Q. 건강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는데 단순히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연배가 비슷한 어르신들 끼리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오히려 돌보미 어르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고,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는 돌보미 노노돌봄이군요. 그런데 코로나로 모임 운영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있나요?

(표일두리) 제가 처음에 온 건 치매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보고 온거였어요. 내가 그때도 씩씩하게 들어온 것 같아. 와서 대상자를 연결해줘서 갔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정들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데, 제가 치매 교육받으면서 받은 거, 그런 거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나오기만 기다려. 자꾸 뭘 준비해놓고,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것(마스크)때문에 더 놀지 못해 아쉬워요. 물이라도 먹으려해도 마스크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지금은 어르신들하고 가깝게 잘 지내니 너무 좋아요. 간식이나 화분 같은 것도 전달드렸는데 잘 키우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해야 해요.

Q. 서울공동체 상에 ‘행복한 소나무’ 모임이 왜 뽑힌 것 같으세요?

(표일두리) 예뻐서 쫓나(웃음)

(박인의) 팀장님이 열성적으로 잘해주시고, 노인들한테 전달하거나 정성껏 만들어서 주시고. 저는 잘 몰랐거든요. 첫째는 장경혜 선생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우리는 한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오늘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음식하고 장보시고, 엄청 열성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참 저렇게 해야하는데.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Q. 서로 끌고 밀고 이게 합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성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편안한 발을 만들어주자 해서 운동화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코로나 아니면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도 갔을 텐데. 처음 노노돌봄 시작한 장경혜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돌리고 싶습니다.

Q. 행복한 소나무 활동이 올해 3년차이신데, 어떤 활동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표일두리) 봉사는 어려서 해서 몸이 뻐 것 같다. 보수 안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게 너무 좋아요. 10원이라도 받으면 어려워요. 그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요. 돈은 만데서 벌면 되고.

(유정자) 여기는 전부 잘하고 있고, 소나무협동마을과 함께 카페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인의) 이대로 더 인원을 늘려서 더 잘하고 싶어요.

(형성철) 노노돌봄이라고 해서 우리 누님들이 음식하고, 음식만드는게 힘들 때가 있는데 저처럼 60대가 들어와서 뒷설거지 같이 도와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만든 음식 가지고 가서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면, 어르신들한테도 누님들한테도 힘이 덜 부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성철 님



표일두리 님



박인의 님



유정자 님

Q. 누님들이 식사 조리와 배달까지 다하고 있는데, 뒷정리를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군요. 자 전국에 계신 여러분 60대 이상 젊은, 가장 큰 특전은 막내 취급을 받을 수 있고요. 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 봉사하실때 오셔서 뒷정리 할 수 있는 분들 꼭 연락주세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며 행복한소나무가 삼양동 지역, 나아가 행복한 소나무 아름답디 나무처럼 자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밖에 수상팀은 '서울마을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aeulweek.org/서울공동체상-활동부문-2/>

인터뷰이 행복한 소나무 유정자, 형성철, 표일두리, 박인의

인터뷰어 강북구마을자치센터 문지혜

19'~21'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소개



2021
2020
2019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 도전소모임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같이 가치 만보	친구가 필요하고 운동체력도 필요한 이웃들이 공기 좋고 활기찬 강북구에서 정신건강 체력건강 만보건강기를 통해 소통	수유동
다락방(多樂房)	강북구 번3동 노인맞춤돌봄 수행 인력 생활지원사들의 모임으로 직장 동료와 함께 손뜨개를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 친목도모를 하고, 수세미를 완성하여 주민에게 나눔	번3동
장미마을 반상회	같은 빌라, 동네 주민들과의 모임으로 옥상 텃밭, 도서 교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모임	송중동
코.탈.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심리건강을 위해 가족공예와 시 낭독을 통해 서로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	수유동

• 이웃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건강으로 소통하는 미삼	오패산에서 주민건강을 위한 체력단련과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이웃 소통 계기 마련	미아동
꿈사모	동네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건강해지고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산책로와 느티나무 쉼터를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동네를 만들	송중동
나길 주민들	오현로25나길을 중심으로 낙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 집 창틀과 계단을 꽃으로 꾸미고 과정을 나누며 이웃관계 형성 및 동네 경관 개선	번2동
너랑 나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빚기를 통해 이웃과 환경에 대한 관심 도모	수유3동
동동모임	계절에 맞는 수제청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이웃주민에게 전달	송천동
디어마이프렌드	강북구 터무니없는 희망아지트에 입주한 문화예술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삼양동

마마담	독서를 통해 관계를 맺고 마을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마을의 이야기 담기	우이동
모여라 꿈동산	20·30대들이 산책을 통해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챙기는 이웃만들기	인수동
발효사랑	발효종초와 발효먹거리 만들기를 통해 발효지식을 공유하고 이웃 관심 도모	수유2동
밥 사랑	건강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 이웃과 관계 만들기	삼각산동
사이좋은 텃밭	빌라 내 정원을 유기농 텃밭으로 가꾸는 과정을 통해 이웃 참여유도 및 유대 맺기	인수동
삼동이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을 장소를 촬영해 마을지도를 만들고 사진전을 개최하여 마을 관심 환기	번3동
세대아우르기	동네 이웃과 함께 선배주민에게 고추장 만들기를 배우고 된장 만들기를 배우면서 이웃 간 소통을 증진하고 세대격차를 줄이는 모임	번3동
세수대야	농여성 간 교류를 위해 다양한 만들기와 나들이를 통하여 정보 공유 및 교류의 폭 확대	번1동
알콩달콩	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매실장아찌 반찬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우이동
오붓한 이웃	빌라 밀집 지역인 수유2동을 중심으로 동네 청소를 통해 지역환경을 지키고, 빵 만들기를 통해 환경 캠페인에 사용하며 동네 소속감 증진 활동	수유2동
운동하소서	운동을 매개로 이웃과 교감하여 몸과 정신건강 찾기	삼양동
은행빌라주민회	빌라(17세대)를 중심으로 소통을 위한 화단 만들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통한 주민 소통, 관계맺기 활동	삼양동
포레스트의 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중심으로 각자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아이 옷 제작 판매, 공예활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함	수유2동
핸드메이드 사랑!	EM을 활용한 자연환경 개선과 여러 DIY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번2동
행복하게 놀아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전공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놀이를 하고, 엄마들 간 소통하는 모임	송중동

• 공동체모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강북구 청년 연극단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연극에 관심있는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낭독극 제작	강북구
모두하우징집수리 봉사주민모임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한 수리기술 강좌 운영 및 수강생들의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강북구
몸지Club	함께 걷기, 체조 등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동시에 에너지 캠페인과 쓰레기 줍기를 통한 환경인식개선 활동	번3동
미인도	골목 심층 인터뷰로 미아동 세대 간 소통 모임 활동, 청년들의 지역활동 활성화 및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에 기여	미아동
手.畵.美(수세미)	수세미를 실제 키워보고 친환경 수세미, 세정바를 만들며 이웃소통을 하고, 미세플라스틱, 화학세제의 위험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 배움	수유2동
숲놀이연구모임	주민을 대상으로 숲에서 할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하고 강좌를 통해 숲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활동	번2동
엄마가 쏘아올린 공연	연극 등 공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고 이웃과의 소통의 장 마련	미아동
책끼고 도란도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림책테라피 강좌 운영 및 1:1 매칭 활동을 통한 정서 지원	강북구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 환경과 관련된 강좌 운영과 환경용품 만들기, 벼룩시장을 통한 재활용 독려 활동 등 운영	번1동
함께밥	배달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	우이동
햇빛마을 주민협의체	지역 돌봄사례 탐방 등 햇빛마을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주거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생활지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모임	삼양동

• 공동체공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놀명쉬명	놀명쉬명 공간을 사랑방으로 운영하며 이웃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놀이하며 소통하는 활동	수유1동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시장 내 공간에서 어린이와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어린이 품물단, 목공교실, 바느질 교실, 요리교실, 체조 등의 활동을 통해 소통 및 어린이 돌봄 활동	수유1동
이음줄진흥협회	이음줄 공간에서 중년,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 택견, 동요 울동 배우기, 고고장구, 노래교실 운영 등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의 장 마련	수유3동
한누리예술협회	한누리예술협회 공간 활용하여 책돌려보기, 공간아나바다, 전문가사 초빙 강좌(연극, 시낭송, 트로트 등) 운영, 각자의 재능 공유 공간으로 활용	인수동

• 골목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능안골주민모임	능안골 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소통과 골목의 문제점 해결 활동, 골목축제 활동	인수동
두꿈팩토리	골목공간을 매개로 골목모임 커뮤니티 결성하려는 모임으로, 주변 양말공장 등을 연계하여 공예활동을 하고 생산품을 전시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아동
두리하나	번2동의 문제가 있던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그 골목을 활용하여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골목만들기 활동	번2동
삼·이·사	30년 이상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좁고, 험한 지역내 거주하는 홀몸노인, 1인 중장년 가구의 돌봄공백, 일상의 우울함 해소와 골목내 쓰레기 문제 개선 등의 활동	삼양동

• 지역사회이제특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코로나19 환경에서 장애(농인)를 가진 사람들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강의, 수어놀이터 탐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활동	인수동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	재건축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고, 전시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 유대감 형성	인수동
행복한 소나무	봉사어르신과 독거어르신을 1:1 매칭하여 서로 '노노돌봄'을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년의 우울함을 해소	삼양동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 도전소모임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책으로 매월 독서모임 진행, 얼어있는 마음과 굳어진 가치관을 깨뜨리는 삶의 독서모임 운영	강북구
마을 펼쳐지음	일상 담은 그림책 프로젝트,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지화, 그림책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지으며 이웃과 교류	인수동
번동사랑	청소와 풀 뽑기, 죽어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	번2동
자주	무료한 일상을 깨우기 위해 종이와 가죽에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다녀오며 그림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	우이동
함께 만들어요	한국에 시집 온 이주민으로 친한 이웃들이 많지 않아, 재능나눔을 통해 이웃과 교류	수유3동

• 이웃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가치놀자	발달지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보살필 수 있는 지역 정서 형성	수유동
강북구 칼림바 합창단	합창과 칼림바 연주를 통하여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려움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적 지혜도 만듦	미아동
강북문화예술 네트워크 추진위원회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의 소통을 늘려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향유의 기회를 늘려 문화예술을 통한 이웃과 교류	강북구
꼬꼬지문화산책	문화(책, 연극, 연주회, 영화 등)를 통해 사람 간의 유쾌한 시너지 효과를 주고 받으며 함께 즐거움을 느껴보고자 함	번3동
꿈사모	녹색장터, 문화, 독서 강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	송중동
너나들이	유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이웃과 소통하며 소외된 아동을 위한 봉사 진행	삼각산동
노래마을 합창단	노래를 통해 이웃과의 화합 도모, 합창 연습을 하여 공연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연주회 진행	수유동

맘스메이커스	회원들이 만든 공예 작품, 소장품 등을 플라마켓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기	미아동
미인도	미아동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과 이야기 소재를 발굴. 주민을 모집하여 미아동 골목 이야기, 여행지도 만들기를 진행하여 이웃과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장 마련	미아동
북끈북끈	오로지 청각적인 요소(음악, 이야기, 목소리)만으로 책의 내용을 소리극 형태로 전해주면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수동
사람+ 사랑+	장애와 비장애, 청·장년층들과 만남을 통해서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며 그러한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을 만들	수유1동
신남공동육아	영아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들과 함께 육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	삼양동
신명나라5070	5070세대들이 모여 취미 생활 및 문화생활을 통한 이웃과의 교류 확대	수유동
연결고리	고독한 어르신들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산책, 핸드폰 사용법, 죽음에 대한 강의 등의 활동으로 서로 연결고리 마련	미아동
오붓한 업선생	종이공예를 통해 육아하는 엄마들이 모여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취미, 재능,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엄마와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하며 소통	삼양동
우리함께해요	코로나19로 하루세끼 집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애쓰는 이웃과 요리를 배우고 반찬을 나누며 교류하고 집콕이 된 일상을 극복	송중동
자몽	마을교사가 공예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소	미아동
제페토와 친구들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모임	삼양동
클라이어	‘나’를 찾기 위한 소규모 합창. 비전문가 단원을 모집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역 음악회를 통한 지역봉사 진행	번1동

• 공동체모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으랏차차중창단	음악을 통한 청년들의 모임. 노래 연습, 우리들의 즐거운 수다, 동네뮤지션들과의 즐거운 만남, 정기공연 등 활동	인수동
장보기	장애인 이웃 간 연대와 비장애인 이웃과의 소통, 장보기, 마을밥상, 만화그리기 등 진행	번동
다레카페	생활한복 만들기, 천연염색,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이웃 주민과 소통	강북구
도토리집 공동육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	인수동
커피한잔할까요	‘커피와 건강’, ‘커피와 문화’로써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법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고, 문화강연과 함께 커피를 즐기며 건전한 지역문화를 형성	수유3동
봄꿈이웃	마을에서 아이꿈 키우기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키움. 초등학교 틈새 돌봄을 지원하고 엄마와 아이와 소통하며 이웃과의 소통 증진	수유1동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담소 나누기, 독서, 영화 토론, 비누·액세서리 만들기, 베품시장, 물놀이 등을 통한 지역 엄마 모임	번1동
몸지 CLUB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한 재활용장터를 열어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시키고 바른 먹거리를 찾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	번3동
숲놀이연구모임	강북구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놀이터 및 생태 놀이의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생태놀이터 실현	번동
엄마가 쏘아올린 공연 (엄쏘공)	교육 연극 공연을 통한 지역 어린이 인성 교육	삼양동
흔한이웃	동네이웃과 함께 중국어 배우기, 뜨개질, 핀 만들기, 열린 마을 밥상 및 마을장터 진행	번2동

• 공동체공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놀명쉬명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그림책독서모임, 뜨개지방만들기, 냅킨공예 등 놀이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체놀이한마당, 지역축제마당 등을 통한 지역화합모임	수유1동
생활살림꾼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천연제품(삼푸, 수세미)과 건강한 음식 만들기 활동, 재활용 프리마켓을 통해 주민들과 의사소통	삼각산동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수유시장 내 위치한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상인 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어린이 풍물단, 마당극, 스윙댄스를 통한 참여 유도. 그 외 여러 동아리(목공, 바느질, 풍물, 그림책, 민요, 난타 등) 운영을 통해 주민 소통 촉진	수유1동
어지나모	작은도서관 공간을 기반으로 뜨개질, 이동 서가, 어린이 놀이터, 영화상영, 베품시장, 동네연합축제 등을 통해 주민 소통 촉진	인수동

• 골목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능안골주민모임	근현대사기념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마을밥상, 재능나눔, 아빠들의 놀이 품앗이, 새들의 마을 골목 조성, 능안골 골목축제 등 개최	인수동

• 마을의제연합사업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송중동사람들	“청소년공간찾기”라는 마을의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네 모임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주민 참여와 네트워크를 구축	송중동

• 특화사업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학교 밖 농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운영, 농자녀 부모 교육, 농유아동 공동육아 모임 형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수어교실, 농문화교실 등 운영	우이동
행복한 소나무	독거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밥상나눔, 나들이, 사례자 발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노노돌봄 진행	삼양동
인수마을 밥상	환경문제 이해 및 바른 먹거리 실천	수유3동

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 이웃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Step By Step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등 함께 걷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사지를 통해 부모 커뮤니티 활동	번3동
강book너머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이웃과 소통	우이동
길동무	도자기 만들기, 목공 생활용품 만들기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어린이 체험 활동 및 육아 정보 교류	송중동
꿈지락	30대~60대 주부 모임으로 뜨개질, 퀵트를 통한 공동체 형성	인수동
너영나영	예술활동을 통한 삶 나누기	인수동
다북다북	독서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삼각산동
두리하나	어린이 밥상 모임. 인근 놀이터, 공원, 숲 등 청소 활동	번2동
등근밥상	마을밥상과 건강 돌보기, 마을공동체 탐방	삼각산동
라라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마을 작은도서관 벽화그리기, 벼룩시장	번1동
마음빛소리	습식 수채화, 노래 합창 모임	인수동
맘스뜨개	육아 공동체로 뜨개질, 인형 만들기, 전시회 진행	번2동
모행성	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독서모임, 청소년 성교육 진행	미아동
벽산 북카페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신간 북 대여 사업 진행. 구연동화 배우기	삼양동
북라이트	독서와 독서토론, 글쓰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	번1동
숨통 트이다	송천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여러 취미동아리의 모임으로 북아트, 고궁걷기, 가정텃밭 사업 진행	삼각산동
아이맘북	구립 번2동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으로 아이들과 부모의 독서, 독후 활동 진행	번2동
어깨동무	인수초등학교 축구팀 장애·비장애 아이들과 학부모의 모임으로 축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박물관 관람, 수영장 단합대회 진행	인수동
얼비춤	초등과정 대안학교 교사 모임으로 토박이 우리말글 배우기와 토론 진행	인수동
엄마랑 놀자	인수초등학교 학부모, 어린이집 학부모 등과 함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소통 놀이 프로그램, 자녀교육 진행	인수동
엄마랑 아이랑	엄마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미술, 신체, 음악 등 아이 대상 일일 놀이 교실	인수동

오동나무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운영 및 엄마 정보공유, 머리핀 공예	번3동
이사이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 체험, 놀이터 탐험, 저녁밥 나눔 활동	수유1동
인사나누기 실천리더	SK북한산시티아파트를 거점으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 가로 화분 가꾸기 활동	삼각산동
일곱빛깔무지개	다문화 엄마들의 모임으로 나라별 음식 만들기, 지역주민 인식 개선 활동, 육아 정보 교류 활동	번2동
일다시일	삼각산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강북구 역사 교육 시설, 놀이 시설, 자연 등 지역자원 탐방 체험 활동	삼각산동
장보기	장애인 이웃 간 연대와 비장애인 이웃과의 소통, 뜨개질, 친환경수세미 만들기, 마을밥상, 마을지도 만들기 활동	번2동
찾아가는 실버엔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니어 세대 모임으로 그동안의 마을활동 수기를 책자로 만들고 관내 마을명소 탐방 및 마무리 잔치 진행	인수동
커피한잔할까요	커피를 좋아하는 이웃들과 커피연구모임 진행, 카페형 마을공간 탐방	수유3동
행행	화계초등학교, 화계초병설유치원의 아이들과 학부모의 모임으로 독서 감상 나누기, 텃밭 가꾸기, 미술활동, 역사문화체험 등 진행	미아동

• 공동체모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가족동아리 따또	초중고 학부모들과 함께 가족공예, 수세미 뜨기, 양말목 뜨기, 미술, 필라테스를 통한 소통	우이동
개굴개굴	엄마들의 모임을 넘어 아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가족단위 소통. 성교육, 목공체험,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수화교실, 나눔장터 등 진행	번3동
그림책정원	엄마들의 재능기부와 책을 매개로 한 소통.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책놀이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미아동
놀명쉬명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독서모임, 뜨개 가방 만들기, 냅킨 공예 등 놀이 소통 프로그램 진행	수유1동

몸지 CLUB	독서 모임, 재활용 장터, 동네밥상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번3동
무너미사랑채	친환경 텃밭 가꾸기,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 친환경 전통음식 만들기를 통한 환경보호 실천	인수동
사는 곳 인수	어린이 교육, 환경, 여성 인권에 공통 관심사를 둔 모임, 면생리대 만들기, 장바구니 만들기를 통한 지역주민 소통	인수동
숲놀이연구모임	가족단위 소통 및 숲놀이·생태놀이터 연구를 통한 지역 생태놀이문화 개선	미아동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 (엄쏘공)	교육 연극 공연을 통한 지역 어린이 인성 교육	수유1동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	번동의 50대~60대 세대 모임으로 밥상 모임, 뜨개질 모임 등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번2동
인수봉숲길 마을협의회	한국 전통가양주 담그기 외 시음회를 통해 인수봉길 숲길 마을 주민 소통	인수동
책끼모	전래놀이, 책 이야기, 전통음식 만들기를 통한 지역 학부모, 아이 소통	송중동
팔방미인	상권 중심의 동네에서 워킹맘들의 소통을 통한 육아 정보 교류, 장터, 마을놀이터, 독서, 강북구 문화자원 탐방	수유1동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담소 나누기, 독서, 영화 토론, 비누·액세서리 등 만들기, 베틀시장, 물놀이 등을 통한 지역 엄마 모임	번1동

• 공동체공간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마을목수공작단	마을의 공동 작업장 기능을 수행하며 제작 작업이 필요한 공동체 지원. 청소년 작업 놀이터, 생활품 수리 프로그램 및 전시회 운영	우이동
삶, 마주하다	자작시 공유, 바느질, 친환경 다과 만들기, 스마트폰 사진찍기, 천연화장품 만들기를 통한 마을주민 일상 공유 및 소통	인수동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수유시장 내에 위치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상인 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탕고, 스윙댄스를 통한 청년층의 참여 유도, 동아리(목공, 바느질, 풍물, 그림책, 민요, 난타 등) 운영을 통한 주민 소통 촉진	수유1동
어지나모	함께 놀자 작은도서관 공간을 기반으로 뜨개질, 독서모임, 친환경 생활재 만들기,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극장, 마을밥상 등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촉진	인수동

• 골목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능안골주민모임	인수봉로 79길, 4.19로 25길, 근현대사기념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마을밥상, 동아리(막걸리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인문학강좌, 텃밭가꾸기 등)활동, 책모임 등을 통한 주민 화합	인수동

• 마을의제연합사업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송사모	동네 공론장, 모임 지원, 민주주의 및 주민자치 교육 등을 통한 동(洞) 플랫폼 구축	송천동
송중동사람들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밥상 나눔, 영화 관람, 나들이, 미술치료, 손뜨개질, 요가 등 소모임 활동 진행	송중동

• 특화사업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강북마을 텃밭공동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강북구 마을텃밭을 재건하여 도시농부학교, 텃밭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 진행	우이동
강북여성주의 모임 문	각 세대 여성들의 모임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성들과 만나 욕구 조사 실시, 세대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강좌 및 워크숍 진행	전체
강사모	상인회 사무실을 사랑방으로 정비하고 시장 내 휴식터 만들기, 골목 축제 진행	수유3동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학교 밖 농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운영, 농자녀 부모교육, 농유아동 공동육아 자조모임 형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수어교실, 농문화교실 운영	우이동
행복한 소나무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밥상 나눔, 영화 관람, 나들이, 미술치료, 손뜨개질, 요가 등 소모임 활동 진행	삼양동



21'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마을에서 만난 사이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로49
전화 02-994-8312
이메일 gbmaja@naver.com
홈페이지 www.gbmaja.org/
디자인·인쇄 지아이엘에스



21'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마을에서
만난사이

21'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마을에서 만남사이

